

2 뉴스

실효성 의심받는 진로상담교수제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양세빈 기자 abok29@khu.ac.kr

진로상담교수제(담임교수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로상담교수제는 진로상담과 학습지도를 통해 대학 생활 로드맵을 구축하고 역량개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알라딘(Aladdin) 홈페이지에 담당 교수가 일정을 등록하면 학생이 원하는 일정에 상담 신청을 해서 교수의 승인을 받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 신청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로 상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은서(국어국문학 2020) 씨는 “교환학생, 교직 관련해서 두 번 정도 지도교수님께 상담을 신청했는데 신청 2주 후에도 승인되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후 예약이 승인돼도 승인 표시만 돼 있고 별도의 안내가 없어 예약 승인 후 어떻게, 어디서 상담하는지 몰랐다”고 전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진로상담교수제에 대한 아쉬움은 담당 교수가 배정되는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최 씨는 “교수님이 배정되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며 “세부 전공과 맞지 않는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으로 배정돼 알라딘 상담 대신 세부 전공 관련 교수님께 직접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캠퍼스(서울캠) 미래인재센터(미인센) 진로교수상담제 담당자는 “진로상담교수는 단과대

학이 자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학기마다 배정 교수를 변경하거나, 연구년이나 학적 변동 사항이 없으면 졸업까지 동일한 교수님을 배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과대학을 모니터링한 결과, 진로상담교수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은 내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해당 사례가 발생한다면 단과대학 행정실에 상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담 신청 오류에 대해서는 “상담을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는 경우, 교수님과 소통하거나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며 알라딘이 아니더라도 교수와 직접 소통해 상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제도의 실효성에 더욱 의문을 남긴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수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상을 고려해 알라딘으로 상담체계를 프로그램화한 제도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학생 참여가 하락세인 것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서울캠은 지난해 1학기는 33.8%, 지난해 2학기는 32.5%, 올해 1학기는 28%의 수치를 보였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지난해 1학기는 58.8%, 지난해 2학기는 40.6%, 올해 1학기는 33.9%의 이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캠 미인센은 “제도가 잘 안 되고 있다기 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상담교수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잘 활용하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학생지원센터 산하에서 운영되던 상담조직 심리상담센터로 출범했다.

(사진=박서현 기자)

심리상담 독립부서 승격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지난달 25일,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심리상담소와 국제캠퍼스(국제캠)의 학생지원센터(상담)가 ‘심리상담센터’로 정식 출범했다. 미래혁신원 미래혁신단 학생지원센터 산하에서 운영되던 서울캠 심리상담소와 국제캠 학생지원센터(상담)가 독립 부서로 승격된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열린 총장 주재 학

무회의에서 국제캠 미래혁신단 황수현 단장은 우리학교의 상담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양 캠퍼스(양캠)의 상담 조직 명칭 통일, 상담사 인력 충원 등을 건의하며 기존 상담 조직의 승격이 이뤄졌다. 캠퍼스별로 동일한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을 통한 상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다.

특히 국제캠 심리상담센터는 재학생을 위한 학생 지원 심리 상담 업무 협업 체계를 구성 중이다. 교내 기숙사와 단과대학, 대학원, 기타 행정부서와의 연계로 주변인의 우울이나 불안 등 징후가 감지된다면 상담센터에 연락해 즉각 위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체계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김효수 센터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

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다 보니 상담 센터가 잊혀가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서울캠과 국제캠의 상담 조직이 새롭게 정비돼 학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캠 심리상담센터 이미경 과장 역시 “자신의 심리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다루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심리상담센터 신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본적 요건들이 갖춰진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양캠 심리상담센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마(이크로)디(그리) 득템하기’

마이크로디그리 수기 공모전

2022. 11. 14 - 11. 25

문의전화 : 학사지원팀

[서울C] 02. 961. 0053 ~ 4
[국제C] 031. 201. 3038 ~ 41

메일 주소

[서울C] khsa 0032 @ khu. ac. kr
[국제C] khwa 5032 @ khu. ac. kr

01 신청기간

2022. 11. 14. (월) - 11. 25. (금)

02 신청자격

2022학년도 마이크로디그리를 신청한 재학생

* 신청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이수과목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03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마이크로디그리 공모전 신청서
- 마이크로디그리 이수내역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2022-2학기 수강 내역 각 1부)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04 심사기준

- 마이크로디그리 참여도
- 참여동기 적절성
- 향후진로 및 학업계획의 충실성
- 마이크로디그리 관련 의견
- 마이크로디그리 추천사유

05 선발인원 및 시상내역

- 최우수상(1인) :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2인) : 장학금 각 20만원
- 장려상(8인) : 장학금 각 10만원